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9호 [루게 제26033호] 주제107 (2018)년 6월 8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단천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단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단천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평양시제1건설국 부원 김옥별은 건설장의 지휘봉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기증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나라의 대통령직지를 일떠세우는 투쟁에 적은 힘이나 마 이바지할 마음인고 홍부신용정보기술교류소 기술봉사원 김경국도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세신성 산하단위 기술준비원 최광혁은 제2차 전국 청년미용선구대회에 대표로 내세워준 당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분전기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해결해주어 날마다 위훈을 떨쳐가는 돌격대원들을 고무하였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적극 헌신하여 온 일용품공업성 산하단위 로동자 박현옥은 단천발전소 건설에 온갖 성의를 다하여 지원함으로써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조국의 만년재부를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합격 복도미술창작사 실장 윤금희는 단천전역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뜨거운 정을 기울였다. 금성제2중학교 사서 최정순은 건설장에서 돌격대원들의 일손을 돕고 경제선봉도 활발히 벌리면서 설비, 기공구들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수산관리국 원산수산물직매점 로동자 김광옥도 공사를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평양시제1건설국 로동자 김미정은 들끓는 건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평안북도제1건설국 부원 김철국도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히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민주공고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로작<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치는 돌격대원들>을 조조소년 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세계평화의 수호자, 인민의 령도자

나 이 제 리 아 신 분 의 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임을 시작하신 54쪽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신문 《나이제리아 오브저버》 5월 25일 부가 《세계평화의 수호자, 인민의 령도자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 올린 김정일각하의 업적중의 하나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신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하여 정의가 무관히 유린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오직 자위의 총대, 무적의 군력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의 공화국과 인정을 수호할수 있다는 철리로부러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 가시었다. 이께서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인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제건설대전진군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9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철강재 생산에 더 큰 박차를

천 리 마 제 강 련 합 기 업 소 에 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헌신감마해인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한 중요건설장들에 철강재 제조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중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뿔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당위원회 지도부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성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로동자들을 생산돌격전으로 힘있게 불어넣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높은 철강재생산성능을 무조건 제기일에 완수하기 위한 전투적의지를 다지고있다. 특히 오늘의 만리마해인관광지구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새기고 들끓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결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신작적의 일보세로 혁신의 불길들 세차게 지켜올리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으로 들끓고있는 전투장들

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의욕이 이룩되고있다. 철강재생산의 선행공정을 담당할 강철작업의 일군들과 용해공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전투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들 들고 생산적의욕을 일으켰던 전세대 강철전사들처럼 오늘의 총공세에서 영예를 받으며 승리자가 될 비상한 자각을 안고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며 강철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차지당 쇠물함을 높이면서도 용해시간을 계속 단축하고있다. 압연작업에서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탐구도 입하면서 압연강재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직장 의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고 어려운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남기지 않으려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있다. 원료보장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줄기차게 생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는 한편 기술개조, 설비개조를

힘있게 다그쳐 질 좋은 미분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강철준비작업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잡히 뚫고나가면서 철강재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산감마해인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 준 철강재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금야강 2호발전소가 일떠섰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판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금야강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힘찬 투쟁을 벌려 금야강 2호발전소를 새로 일떠세우고 전기생산성을 정상화하고있다. 금야강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생겨났다는 중순형발전소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지방공업을 활성화할데 대한 당정책판결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에너지기생산을 경제성에서 동태기생산을 전방성있게 밀고나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도의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금야강 2호발전소건설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교시를 주시었다. 금야강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 이 관철할 불타는 임업을 안고 금야강 2호발전소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군의 일군들은 건설에 앞서 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민들림이 새우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였다. 강력한 건설력량이 조직되고 설계가 훌륭히 완성된데 맞게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결린 문제들을 풀기 위해 발이 앞다투어 뛰어다니면서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혁신으로 적극 불어넣어주었다. 언제나 기초공학공사에서 큰 몫을 맡은 군발전소건설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현장을 차지하고 공사에서 나서는 기술적으로 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기세를 올리고있다. 이들은 막아서는 알반을 함파와 정대로 가내면서 맡겨진 기초공학공사를 남다른 끈기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연속공작전을 벌이면서 금야강을 가로막아 언제나 쌓고 토사제방과 방수로공사, 수백m의 발전기기를 비롯한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마무리하였다. 건축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낸데 맞게 금야강의 일군들은 올해 대양결을 맞으며 발전설비 조립을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을 벌렸다. 일군들은 발전기조립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해 군의 기술력량을 동원하는것과 함께 현장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실전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책임일군들은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결린 문제들을 솔선 풀어주면서 그들의 정성력

을 적극 발휘하였다. 일군들은 군인의 모든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설비가공기지에서 발진설비부품들을 제작하는데 힘을 냈다. 생산강건기공장과 대인중기계련합기업소, 동성기계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금야강의 일군들, 근로자들과 승결을 같이 하며 발전기제작과 설비조립전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군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애국의 마음인고 로동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소건설을 지원하여 완공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 관철할 의지와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금야강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출기찬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발전기조립은 수개월동안에 끝나게 되었으며 전기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규모수력발전소인 금야강 2호발전소와 잇따라 계단식으로 금야강 2호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군의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기대가 마련되었다. 금야강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강한 한 투쟁에 의해 일떠선 금야강 2호발전소에서는 지금 전력생산의 용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특약기자 김경철**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더 많은 통나무를

량 강도 립업 관 리 국 에 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판에 펼쳐나선 량강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해산-삼지연철길건설장과 원산감마해인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에 필요한 통나무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생산적의욕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감마해인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하고 삼지연관광지구와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쏟아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은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통나무생산량을 맡은 사업소들에 내려가 실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에 따르는 보장사업을 적극 따르세워 로동자들의 양양된 기세가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있다. 년 초부터 출기찬 중산투쟁을 벌려오는 도인의 립업사업소, 경공업사업소들에서는 이미 건설장들에 수만m의 통나무를 생산

하고있다. 풍서림사업소에서도 원산감마해인관광지구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 자신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잊고 들끓는 산골들에 나가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로 증산의 들과파를 열어나가고있다. 로동자들은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통나무를 보내기 위한 투쟁에서 면밀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감산림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단천발전소 건설장과 한호호에 선 심정으로 공사에 필요한 통나무생산에 큰 힘을 넣고있다. 단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는데서 통나무보장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통나무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서로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립업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찾아내고 이따라앞가, 따라메우기 운동, 경험교관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약기자 전철주**

2년분, 년간계획완수자들 련이어 배출

김 정 숙 평 양 방 직 공 장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투쟁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들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전 중산투쟁에 한걸음이 펼쳐나선 김경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속에서 2년분,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로력혁신자재들이 늘어나고있다. 5월달현재 35명의 로동자들이 2년분, 년간계획완수자의 영예를 지녔으며 수십명의 로동자

들이 년간계획완수의 날을 눈앞에 두고있다. 공장의 당, 행정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살다살이 하며 대중의 심정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전투속보와 방중선전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수단을 통하여 로력혁신자들의 위훈을 소개전하는 사업을 바쁘게 내밀어 집단적혁신창조의 불길들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따라 앞서기, 따라메우기 운동, 경험교관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공장에서는 누구나 만리마해인관광지구수가 되는 승벽이 높이 솟아 좋은 생산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올해전투의 첫날부터 분기계획을 보름만에 완수하여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한 방직

리명동, 김경숙동무들은 전직의 기수가 되어 새 기록을 창조하는 한편 신일기대공들의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사업도 활발히 벌려 직장에서 집단적혁신의 기상이 차나치기위해 노력하고있다. 특히 1직포직에서는 모든 직포공들이 종전보다 한두대이 나서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매일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하루일을 마치고 다음교대를 도와주는 미풍도 높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 관철에 총결기, 총대진하여 펼쳐나선 김경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은 공화국장정 일흔셋을 자랑한 로력혁신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진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당중앙이 정한 돌격침로 따라 완공의 날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말씀을 높이 받들고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

광명한 미래를 마중해가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본다

격동의 불이 달렸다. 진군 도 진군의 기상이 명사 심리전역에 새차게 나타내고 있다.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집중노 도치는 전진의 기상인양 동태의 명승지에서는 웅장한 건축물들이 아찔과 저력이 다르케 커를 들고있다.

지대정리와 로반성도, 하부망 공사를 결속한 기세로 골조공사 본격적으로 추진!

현지도이후 많은 대상의 골조공사 또다시 완성, 15만㎡의 전터발 조성!

러명신화가 창조되던 시기가 옛일처럼 되어버린 명사심리전역에서 타오르는 만리마속도창 조투쟁의 거대한 불길에는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산도 떠올기

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장 병들과 각지에서 달려온 건설자 들의 불보다 뜨거운 총정의 열 도가 어그러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당이 구상 하고 일단 결심하면 그것은 끝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의 행을, 실천으로 되겠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격전장의 승결을 한가슴에 안 아불수록 더 좋은 데에 대한 락관과 승리의 신심이 더욱 배

배해진다.

창공을 찢으며 수풀처럼 건 팔을 뻗쳐온 기공기들, 대공 로를 따라 꼬리를 물고 기운차 게 내달리는 대형화물자동차 들, 중기제들의 우렁찬 동음, 경 제선동의 힘찬 북소리, 일순마 다에 혁신의 불바람을 새차게 일으키며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러치는 맹렬한 공격전의 함성이 창조와 건설의 대교황곡이양 은 건설장들을 들썩이게 한다.《인민 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 준에서!》, 《만민을 지고 최대속도로 내달려라!》, 곳곳 에 나붙은 갈바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말씀편

투쟁으로 부르는 방축원들의 격 동적인 목소리들이 들끓는 명사 심리전역의 전투적기상을 더해 준다.

당중앙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 라 완공의 날을 향하여 최대속 도로 내달리는 일당대군인건설 자들과 각지에서 달려온 건설자 들의 감격과 적정은 지금 하는 가에 달랐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명사심 리해변가를 따라 각각각이한 건 축물들이 키들움하며 솟아오른 건설장전역을 바라보이며 불과 몇개월사이 에 정말 많은 일을 해졌다고 공사에

불면불투의 현저지도는 기적에 서 더 큰 기적에로 한계를 모르 고 줄달음치는 이곳 군인들과 건설 자들에 신화적인 건설속도 창조를 내내를 펼쳐주고있다.

혁명의 전위대로, 주체군인 군 인건설자들이 인민의 행복의 창 조자들답게 당정책옹호전의 앞 장에서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비움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다들은 인민군 군인들은 현재 총포조공사상의 93%제선을 돌파한 기세로 파 각한 현수공작원을 벌이고있다.

골조공사를 제일먼저 완성하 고 외부시장작업을 마감단계에 서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군 김 영근소속부대의 뒤를 따라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호열과 자취속, 독립봉사상을 비롯한 수 십개의 기본대상건설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일당 백공작정신으로 방대한 저지주 공사를 해체된 인민군장병들은 단숨에의 기상을 떨치며 건설장 구역의 습지대를 풍지수려한 인 공조수로 전변시키는 위훈을 떨 치었다. 군인건설자들은 뿔뿔, 변전실을 비롯한 보조건물공사 에서도 기세를 올리며 뿔뿔, 섬전역의 위력을 높이 펼치고있 으며 공사장구역에 뿌리내린 1만 수천근구의 나무들과 수 수 속도높이 나가고있다.

속도전진돌격대지도도국려단 전투현장에서도 새로운 영웅 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갈 청년명

은 인민보안성령단에서는 현저 지도도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지은 성과와 경험을 매일매일 심도있게 분석총화하고 현장기 술학습과 안전 작업방비도임을 밀집히 결합하여 하루하루의 실 적이 몇몇한 대조를 이루며 속 속 높아지게 하고있다. 기본대 상건설만이 아니라 뿔뿔과 변 전실에서 비롯한 공사대상들을 빠 른 시일안에 결속할수 있는 돌 파수도 열어나가고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 리가 다 말하는 신념의 구호를 높 이 추켜들고 내달리는 군인건설 자들의 투쟁모습은 각지에서 달 려온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도 격동의 불을 달아주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에서 또다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총정의 보고 를 남기며 드릴 불라는 일념으 로 총만된 평양시려단의 건설자 들이 현일 성과를 확대하고있 다. 이들은 내외부시장과 지붕 공사, 외벽보온배수기를 비롯 한 작업들을 힘써나가고 다그쳐 최근 열출동인양도 높은 공사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수도건설위원회에서는 독 립봉사건물-24, 25, 26 등 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의 내외부시장을 완성한 기세로 불 리한 조건을 극복해나가며 공사 속도높이 나가고있다.

속도전진돌격대지도도국려단 전투현장에서도 새로운 영웅 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갈 청년명

장들의 불라는 총정의 맹세가 새차게 울려져오고있다. 당의 결정지시관철에서 총정의 슬기 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갈 불 같은 열의에 총만된 이곳 청년들, 돌격대원들은 여러들의 독립봉 사건물들과 2층의 해수욕장건 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 상수원공장의 외부시장들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그밖의 단위인군들과 건설자 들도 신념을 더 바짝 조여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 지도말씀편철에 신안같이 떨쳐 나 기세를 올리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인이 보장되지 않 았아 기다리지 않고 떠돌아나가는 공적정신으로 대상공사에서 일자리를 폭록 내고있다.

건설지휘부의 당, 행정일군들 은 돌격로를 앞당겨서 열어나가 는 화신지휘관들처럼 조직정치 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짜고들어 현저말씀편철에 펼쳐나선 대공의 양양된 열의를 최대로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건설지휘부 정치분과에 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말씀편철에 대공을 불리 일으키는 화신식정치사업과 불리 단정경쟁운동을 참신하게 조직 하여 건설장전역이 화신전진, 화 신전동의 북소리를 더욱 격렬하게 하고 애국열, 투쟁열, 경쟁열이 차던치게 하고있다.

지난 1일 명사심리전역에서 는 모든 건설단위들이 활기찬 기 공구현시와 선전선동수단들의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었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 면서 건설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 준에서 보장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공구들은 그 하 나하나가 지역자장의 기치를 높 이 들고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창 안한 리용자치가 큰것들이다. 기 공구현시에서는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호전에 펼쳐나선 건설 자대공의 비상히 높은 투쟁열의 를 남김없이 피사하였다. 뛰어난 백여대의 방수선전차들과 선전 선동수단들의 단위별경쟁이 벌 어진 명사심리전역은 사상전의 위력으로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대적전장의 승결을 더해주었다.

우리는 신화적인 건설속도창 조로 들끓는 전투장에서 건설지 휘부의 한 일군을 만났다. 그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결 사관철의 투쟁으로 세계가 보 란듯이 로동당시대의 기비비적 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겠습 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불 같은 심정의 고백이라. 미장갈을 붙이 번쩍 나게 휘두르는 군인 건설자들, 붙음을 신고 내달리는 자력자운건설자들이 기공기운전 공들, 한포기도 한포기도 정성담 아 복지조성작업을 다그치는 이 름모를 건설자들 그 누구에서 나 들을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명사심리전역에 물이지 는 비약의 폭풍을 운운으로 느 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천만군민의 억척같은 기상을 본다.



대답은 오직 하나 - 《결사관철》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당의 부름이러면 산악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의 미려운 군인건설자들은 오직 《결사관철》이라는 대답밖에 모른다. 그 대오속에는 력량 대 공사실 적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는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장 병들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 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 에서 선구자, 선봉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가 맡아 수행하는 공사대상은 군 20개에 달한다. 한층의 자취속을 일떠세우는데만도 수 십차량분의 세멘트와 요구된다 는 사실은 부대가 맡은 건설대 상의 규모를 짐작할수 있다.

군 1km나 되는 해안선을 따 라 수십만㎡의 넓은 면적에 자취속과 독립봉사건물을 비롯 한 20여개의 건축물들이 일떠 세고있는 전투현장은 격전장을 방불케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말씀편철에 펼쳐나선 이곳 부대장병들은 이미 여러들의 독립봉사건물공사를 완성한 기세 드높이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

가고있다.

건설현장에 기동적으로 전개한 가일부대와 부대별로 전개한 10여대의 방수선전차들에서 는 대공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 배해주는 화신전진, 화신전동의 포성이 높이 울려져오고있다.

장병들이 총포발사기 는 현장정치사업이 힘써적으로, 공세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전투 현모두가 백병전에 나선 용사마냥 총공작전을 벌이고있다.

장병들로부터 전 사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오직 하나의 지향이 차던지는 가운데 보다 높은 공사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조인이 다른 단위보다 좋은것 은 아니다. 로력과 설비가 부족 하였다.

공사과제는 방대하지만 군인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는 불가 능을 모르는 불굴의 투쟁정신이 새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사회주의건설도 조국보위도 우리가 다 말하는, 이런 일념은 공 사장마다에서 위훈의 자욱을 수 놓아가는 원인이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지도이후 이곳 장병들의 일본새와 발걸음은 더욱 빨라 졌다.

공사과정에 수만대의 강관발 대를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하 게 나왔다. 부대의 발대보유량 은 소요량의 1/10밖에 안되 었다.

많은 량의 발대가 최단기간에 전량 보정될수 있다는 담보는 없 었다. 하지만 발대가 부족하다고 하여 공사를 중지하였는가.

부대지휘관들은 총사령관에 서 판단드리고인 발대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앞장서 있었다. 이들 은 총사령관에 반대선 회의를 리용할 대담한 결심을 하였다.

부대지휘관들은 총사의 양생 시간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 여 발대 로 리용된 휘물들의 해 제시간과 순서를 면밀하게 정하 였다. 결과 이 부대는 적은 발대 를 가지고도 연전연이 수천㎡나 되는 독립봉사건물-9와 12에 대한 골조공사를 제일먼 저 끝낼수 있었다.

긴장한 발대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은 한일수소속 부대 장병들속에서 나왔다. 이들 은 간단한 철근구조물을 총각 도막에 리용하여 수천㎡의 발대 를 쓰지 않으면서 건설물의 질 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기술

적방안을 내놓아 부대의 진격속 도보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오의 기수, 송풍기가 되어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지 휘관들의 모습 또한 미덥다. 리 병들, 송풍기, 원장남, 명경산동 무를 비롯한 현장정치일군들은 전투정신이 살다시피 하면서 어 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뿔구 이개를 들이대고 전격의 돌파구 를 열어나가고있다. 유영철소속 부대 정치일군은 송풍차에 방수 설비를 설치하고 공사장들을 돌 면서 호소성이 강한 화신전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건설자들의 사 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현장조건에 맞게 진행된 기공 구현시에는 커다란 실패를 지우 었고 각 부대에서 달려나온 군인가족들의 즐거운 신통할품 은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혁명 열, 투쟁열을 배배해주고있다.

당중앙이 가리신 돌격침로따 라 폭풍쳐나가는 길에서 언제나 《결사관철》, 이 한마디 말밖에 모르는 김성덕소속부대 군인건설 자들.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 음, 백걸음을 걸이시려고 기어 당정책관철전의 맨 앞장에서 나 가려는 부대장병들의 비상한 각 오와 불라는 총정에 의해 건설현 장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적 과 혁신이 계속 창조될것이다.

당의 결심은 우리의 실천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흥먼저 자욱한 우리들의 전투현장을 몰소 찾오시어 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서 나서 는 파업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 주시었다.

이날 공사장의 여러곳을 돌 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건 축물들을 관망자리의 고유한 양 상이 살아나게 특색있게 일떠세 우며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 원리복화사업에서 나 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오랜 시간간 겹쳐 우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며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시 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로고가 어찌와 눈금이 컸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 자로서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 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 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습 니다.》

대한 웅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오늘의 보람한 투쟁에서 인민군대가 맡 은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당중의 혁명적의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포발사시키기 위한 화

선식정치사업과 집단적 경운운동을 힘있게 벌 려 건설장전역이 화신 전진, 화신전동의 북소리를 때를 썩히게 하고 애국열, 투쟁열, 경쟁열을 높여주었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파업은 더욱 방대하다. 그러나 최상의 조건에서도 다발적으로, 편발적 으로 이룩해가는 최상의 성과속 에는 공사대장들을 비롯한 혁명장 군의 무한한 위력이 있다.

우리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 구를 세상에 들도 없는 우리 식 의 해안도시로 훌륭히 건설할로 례서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 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 록 하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들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갔 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조선인민군 군관 안 종 식



당정책옹호전의 일장에서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수도건설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분,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집행하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하는 초소에서 자기의 책임과 직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머칠전 원산시대도로를 따라 20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향하여 꼬리를 물고 달려갔다. 열렬한장을 지나가는 기적화 부대마냥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 들에는 수도건설위원회의 일군 들이 성의를 띤만한 자세와 지 원원자들이 가득 실려있었다.

대형화물자동차들마다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 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 욱 가속화하자!》, 《천민총동격 전》, 《결사옹위》를 비롯한 힘있 는 갈바들이 나붙고 붉은 기록 들이 새차게 펼쳐있었다.

선두에서 달려오는 방수선전차

에서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배 배해주는 노래 《승리의 길》이 장엄하게 울려져오는 속에 걸가 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손 저어 축하해주는 이채로운 희곡 이 펼쳐졌다.

물론 건설자재와 지원원자들 을 신고 건설장을 찾는 자동차 들은 그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의 분위 기는 류달렸다. 여기에는 사연 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저지도하시 었다는 소식에 집 한 후에 있 는 일이었다. 수도건설위원 회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가슴은 새차게 설레이었다.

조국과 인민 을 위해 헌신 의 낫과 발을 이어가시는 그 처럼 바쁘신 속 에서도 흥먼저 자욱한 건설장 을 찾오시어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들수록 모두의 생각은 깊 이었다.

수도건설위원회 당책임일군 의 방은 밤잠도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 을 하루빨리 꽃피우는데 이바 지하여야만 무엇을 더 해야 하겠 는가.》

곧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을 통 하여 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 필요한 건설자재와 돌격대원들 을 위해 필요것이 무엇인가를 간간히 료해한 당책임일군은 다 음날 일군들의 긴급회의회를 열 었다.

회의회에서 토론된 문제는 공 사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 장하기 위한 방도였다.

사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얼마전에도 많은 량의 건설용자재들을 싣고 전투장소를 찾오신 일군들이었 다. 더우기 전국각지의 여러 중 요대상공사들을 맡아 수행해야 하는 조건에서 또다시 많은 량 의 자재와 지원을 비롯한 건설

자재를 성의껏 마련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리소호동들은 불같이 호소하였다.

지금은 천해마다의 말보다 실천 이 더 귀중한 격동의 시대이다. 조 전에 앞서 다비치는 결사관철의 투 사가 되자. 그러면 믿이 열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말씀편철을 위한 투쟁에 너 도나도 떨쳐나섰다.

단 며칠사이 에 수백의 강재 와 수백㎡의 목재가 마련되고 건설자들의 후방사업에 이바지 할 물자들이 확보되었다. 이렇 게 되어 당책임일군이 선두에서 오 른 자동차행렬이 건설장으로 향하게 되었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한가지라도 더 많이, 한시라도 더 빨리 해고 총정의 보고를 드려야하는이곳 일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이것은 수도건설위원회 일군 들만이 아닌 천만군민의 한결같 은 신념이고 불같은 지향이다.

그 열화같은 마음에 떠받쳐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으 로는 자재와 지원원자들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달려 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지도도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이 펼쳐나선 강원도려단의 일군 들과 건설자들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만든 것은 문세들을 즉 시에 기동적까지 끌어주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장 강원도려단지휘부 일군들은 첫 제도 들에도 건설물의 질을 높 이는데 도를 학교 공사장마다에 책임성이 높고 실력있는 일 군들을 배치하여 공사속도와 질 을 다같이 보장하였다.

민박속소공사를 맡은 단위들 에서 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지 퍼올려갔다.

《올해에 군인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하고 삼지 연군구리까지 단련발전소공 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 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건설에 계속 힘 을 넣어야 합니다.》

강원도당 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 지도도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로 인군들과 돌격대원 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신식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특히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공사대를 늘리고 로력과 장비들 은 물론 중량화물자동차를 비롯 한 튼튼기체들과 혼합기체들을 더

많이 보내주도록 하기 위한 사 업에 힘을 넣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공사장에 수시로 나 가 공사추진정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 시에 기동적까지 끌어주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장 강원도려단지휘부 일군들은 첫 제도 들에도 건설물의 질을 높 이는데 도를 학교 공사장마다에 책임성이 높고 실력있는 일 군들을 배치하여 공사속도와 질 을 다같이 보장하였다.

민박속소공사를 맡은 단위들 에서 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지 퍼올려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 지도이후 원산시대대의 천해군대, 문신시대대의 일군 들과 전투원들은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기어 관철할 당력과 배양을 이 고 말은 골조공사전투를 힘있 게 벌려왔다.

원산시대대에서는 철근과 휘물조립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 저히 지키고 혼합기체들의 만가통 을 보장하여 총각코르티콘기 체를 제일먼저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뒤질세라 문신시대대 에도 로력조직을 짜고두고 일정 계획을 면밀히 세워 그날 맡겨

진 공사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천해군대대의 전투원들도 집 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달 리고 건설장을 달려나가는 정화 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갔다.

합숙공사를 맡은 통천군, 관 교군, 고성군대대의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전투과정을 정하 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기 위해 밤이 깊도록 뛰고 또 뛰며 서 공사실적을 올리는데 기여하 였다.

창도군대대에서도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전투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하면서 원만한 단위의 공사장에 달려나가는 정화 과 휘물조립을 도와주는 남다 른 모범을 보여주었다.

려단인의 다른 시공단위 일군 들과 전투원들도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건설을 하루빨리 완공 할 불라는 열의를 안고 건설장 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 없이 바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지도도파업관철을 위한 총동 격전에 펼쳐나선 려단의 일군들 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혁명열 의에 의해 공사실적은 날마다 튀어오르고있다.

글 및 사진 현저보도반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자

실력가, 박사가들로 자라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품도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몇해에 걸쳐 김형권선포 기술사범대학의 교육사업에서는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대학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교원양성부대 대학 졸업반학생들의 실력관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 부문 대학생수준경연에서도 여러번 우승하였다.

하다면 대학에서 주목할만 한 성과들을 거두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동해기 습에 자리잡은 김형권선포 기술사범대학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난 대학이다.

우리 수령님께서도 일찌기 신포시에 대학이 하나 있어야 이곳을 전망성있는 수산기지로 꾸민수 있으며 또 이 지방에서 문화혁명을 밀고나가는데도 좋다고 하시면서 대학건설과 관련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 대학의 학생들을 친히 만나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대학의 연혁사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사랑과 국가적일 조지들은 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에게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나가는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그들은 새 출발을 하는 심정에서 먼저 대학실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았으며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를 위해 토론도 거듭하였다.

후대 교육을 위한 원동자인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야 건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는것이였다. 또한 실력있는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깊은 지식과 훌륭한 교육방법을 소유한 앞날의 교원들로 키워내기 위해 교육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나갔다.

여기서 중요하게 내세운것이 학생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철바탕정신을 뼈속깊이 새겨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노선을 받들어 국내에 진출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감옥에서도 혁명적신념을 끝까지 지키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학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어, 이련 편람을 가지고 대학일군

들은 학생들이 혁명적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담사행군을 높은 정치사상적각으로 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담사행군을 통하여 받아안은 제헌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작품도 창작하도록 하였다.

대학에서는 10여년전부터 뜻깊은 대양결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글락품질을 준비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어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이런 영광을 가슴깊이 새긴 학생들은 담사행군의 나날에 받아안은 강렬한 사상감정과 넓은 안목으로 악독하고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조국의 벽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문학작품들을 즐기치게 창작해나가고있다.

학생모두들 실력가, 박사가로 키우기 위해 대학에서 힘을 넣은것은 그들의 기초지식을 더욱 탄탄히 다져주는 문제였다.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하여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주는 수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학과목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과과과 활용능력이 한결같은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기초를 잘 담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실력은 대학공부를 하면서 차이나게 된다.

하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

육자의 자질을 원만히 갖추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등일반과목들에 대한 교육을 심화시켜나갔다. 오전에는 대학의 과과과를 집행해나가고 오후와 학습시간에는 학생들이 중등일반과목들을 깊이 과과과하기 위한 학습전투를 벌리도록 이끌어 주었다.

여기서 모를 박은것이 모든 학생들이 중등일반과목에 제시된 내용을 완전히 자기것으로 만들어 응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도록 한것이다. 결과 대학에는 실력경쟁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모든 학생들이 기초과과의 법칙과 원리를 배우는 보다 깊이 과과과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적극 과과과하게 되였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자의 자질과 품도를 갖추도록 하는데서 교정에 대한 애착심을 간직하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그를 키워주기 위한 사업도 신속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대학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이 깃든 교육자제인 프락토르가 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볼수 있게 일부 부분을 전라놓는 프락토르는 구조와 작용원리를 과과과하고 인식시키는데서 프락토르와 컴퓨터를 결합시켜 교육기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것을 계획하였으며 이것을

교원들과 학생들이 많이 실현하도록 하였다.

물리학과 교원들과 학생들은 지체와 열정을 바쳐 프락토르에 앉아 화면을 보면서 모의운전을 할수 있게 교육기재를 발전시키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교정에 대한 애착심이 소중히 자리잡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였다.

대학일군들은 도서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도 실무적인 사업으로만 대하지 않았다.

대학에서는 도서확보사업을 잘하여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많은 도서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남다른 긍지를 안겨 주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즐겨찾는 도서관의 장서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과과과한, 학생들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일에 와타타 해제하였다. 제손으로 번듯하게 꾸민 도서관은 학생들속에서 독서열의를 높여 주었을뿐아니라 교정에 대한 애착심을 깊이 새겨주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원히 교단을 지켜갈 신념가정의 교육자들로 더욱 탄탄히 준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날 대학의 교육자들과 학생들은 영광의 교정에서 사업하며 배우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차 수

금성제 1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다.**》

컴퓨터수업양성기지를 잘 꾸리고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한것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고 지난 기간 학교에서는 교육사업의 과과과, 정보화에 이바지하는 실용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학교교육사업을 크게 개선하여왔다.

백현교장을 비롯한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은 학생들의 실력과 교원들의 자질, 교육조건과 환

금성제 1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다.**》

컴퓨터수업양성기지를 잘 꾸리고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한것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고 지난 기간 학교에서는 교육사업의 과과과, 정보화에 이바지하는 실용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학교교육사업을 크게 개선하여왔다.

백현교장을 비롯한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은 학생들의 실력과 교원들의 자질, 교육조건과 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다.**》

컴퓨터수업양성기지를 잘 꾸리고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한것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고 지난 기간 학교에서는 교육사업의 과과과, 정보화에 이바지하는 실용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학교교육사업을 크게 개선하여왔다.

백현교장을 비롯한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은 학생들의 실력과 교원들의 자질, 교육조건과 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구현에서 중시한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기승회령고급중학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 사이의 회담 진행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 사이의 회담이 7일 만수대의사장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상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도 조미수뇌상봉을 앞둔 정세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하였다.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하였다.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72돐 경축행사 대표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소년단창립 72돐 경축행사 대표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소년단대표들은 아이들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며 사랑의 환풍을 받아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고향집드락에 들어섰다.

력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혁명정애에 대하여 깊이 체득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리시절 평양봉에 오르시어 일제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강원의 지를 키우신 학승터, 세름터 등을 돌아보았다.

대장산혁명명사상을 찾은 소년단대표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청춘도 생애도 아낌없이 바친 혁명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뜻깊이 이어갈수있는 역군들로 더욱 탄탄히 자라날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소년단대표들은 청년운동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먼저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상에 뜻도바다를 정경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주체적청년운동의 시련을 열여놓으시고 청년들이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숙부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업상을 뜨겁게 새겨두며 전진된사적자료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소년단대표들은 《전국

소년과학관상문에작품 및 모형전시회-2018》과 중앙계급교양담당 참관하였으며 봉라인리유원지와 봉라공룡이관,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시안의 문화정서생활자거점들에

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었다.

소년단원들을 제일로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 이끄셨던 조지 김정은원수님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행복만을 받아안은 소년단대표들의 기쁨과 평안에 넘친 웃음소리가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미래사랑이 넘쳐나는 별천지들에서 울려퍼졌다.

소년과학관상문에작품 및 모형전시회-2018》과 중앙계급교양담당 참관하였으며 봉라인리유원지와 봉라공룡이관,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시안의 문화정서생활자거점들에

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었다.

소년단원들을 제일로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 이끄셨던 조지 김정은원수님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행복만을 받아안은 소년단대표들의 기쁨과 평안에 넘친 웃음소리가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미래사랑이 넘쳐나는 별천지들에서 울려퍼졌다.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 평양 도착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하였다.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하였다.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하였다.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하였다.

중국대사관 성원들 태안협동농장에서 진선로동

주조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7일 순안구역 조중친선협동농장에서 진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알뜰공산으로 받들어갈수있는 의의인근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

조진선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농장이 조진로동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판결을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조진선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농장이 조진로동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판결을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조진선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농장이 조진로동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판결을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조진선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농장이 조진로동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판결을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조명호 교도조선고급학교 교장과 장명림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떠나갔다

전진성 규슈조선고급학교 교장과 조경환 아이찌조선고급학교 교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조명호 교도조선고급학교 교장과 장명림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떠나갔다

전진성 규슈조선고급학교 교장과 조경환 아이찌조선고급학교 교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



